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 (나)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0401

(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룸으로써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실제의 윤리적 문제 상황에서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사람의 성품, 행위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 ① (가)는 도덕 언어의 의미와 분석을 핵심 탐구 과제로 삼는다.
- ② (나)는 각 사회의 도덕적 관습의 객관적 기술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보편적 도덕 법칙의 이론적 정립을 추구한다.
- ⑤ (가), (나)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2.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1102

갑: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다.
 을: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 양립 가능하다.

- ①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무시한다.
- ②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을 무시한다.
- ③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한다.
- ④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임을 간과한다.
- ⑤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1013

갑: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으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보는 순간에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기의 고유한 죽음으로 달려가 보는 것은 현존재에게 주어진 가장 준엄한 과제이다.

- ① 갑: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두려워해야 할 고통이다.
- ② 갑: 육체적 죽음이후에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 ③ 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④ 을: 죽음에 대한 자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
- ⑤ 갑, 을: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0908

갑: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政務)를 담당한다.
 을: 신(神)은 만사(萬事)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지정하였다. 우리는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 ① 갑은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 ② 을은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한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인위적 규범에 따른 직분의 구별을 주장한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⑤ 갑, 을은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0607

갑: 정의의 일차적 주체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정하는 정의의 원칙은 당사자들의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가는 그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다. 최종 결과에 중점을 둔 원리와 달리 역사성을 고려한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의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

- ① 갑: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 권리는 제한될 수 없다.
- ② 갑: 기본적 자유가 개인들에게 불평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③ 을: 개인이 노동을 통해 취득한 소유물도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을: 정형적 원리에 따른 재분배는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에 어긋난다.
- ⑤ 갑, 을: 정의의 원칙은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정해 준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10611

갑: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을: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② 갑: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이 신출할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을: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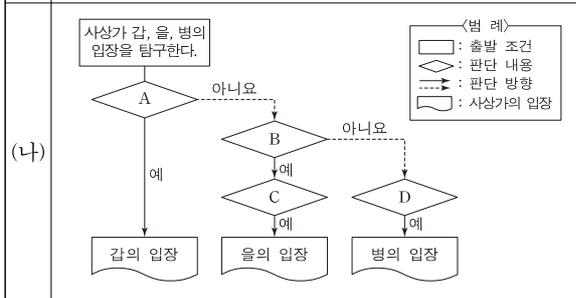
7. 갑 사상가는 긍정, 을 사상가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10908

갑: 기술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없다.
 을: 우리는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 ① 기술 그 자체는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인가?
- ② 기술은 그 자체로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 ③ 기술은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④ 기술 그 자체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가?
- ⑤ 기술의 사용을 결정할 때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가?

8.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21109

(가) 갑: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을: 형벌의 남용은 결코 인간의 개선시키지 못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은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 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병: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이므로,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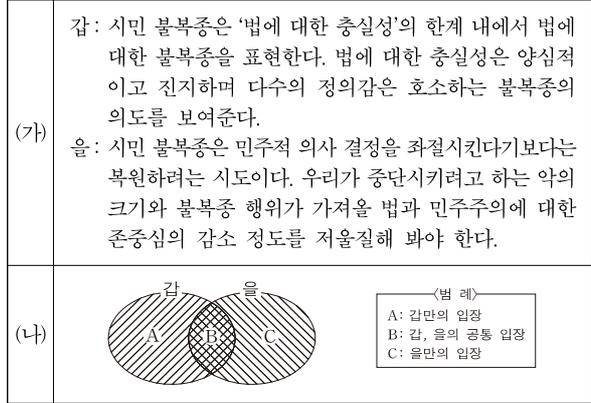


<보 기>

ㄱ. A: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을 가해야 하는가?
 ㄴ. B: 사회 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한가?
 ㄷ. C: 형벌은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가?
 ㄹ. D: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9.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규 문항



<보 기>

ㄱ. A: 시민 불복종은 결과와 무관하게 이행되어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ㄴ. B: 시민 불복종의 참여자들은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ㄷ. B: 시민 불복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ㄹ. C: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규 문항

갑: 자연법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다고 해도 권력이 없다면 권리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산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민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을: 자연법이 있어도 권력이 없다면 또는 권력이 있어도 시민의 안정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면 인간은 비참한 자연 상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보 기>

ㄱ. 갑: 국가는 공동의 법률에 따라 시민 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ㄴ. 갑: 국가 수립 이전에는 어떤 개인도 자연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ㄷ. 을: 통치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 권력을 가져야 한다.
 ㄹ. 갑, 을: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한 계약으로 수립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